

고대의 점술이나 신탁은 항상 두루뭉술했다. ‘왕께서 이번 싸움에서 승리하실 겁니다’라며 승리를 장담했다가 패배할 경우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탁을 전달하는 술객들의 말은 상징과 추상으로 얼버무려졌고 묻는 사람의 희망사항이 투영될 여지를 남겨두었다. 그러나 요셉의 해석은 선명하고 구체적이었다. 파라오와 모든 신하들은 요셉의 말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 창세기 41:32-33**

이보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는가. 파라오는 그 자리에서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고 자신의 인장반지를 주고 귀족과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세마포 옷을 입힌다. 야곱이 준 채색옷이 벗겨지고, 노예의 옷이 벗겨졌던 요셉에게 왕이 주는 옷이 입혀졌다.

파라오는 요셉에게 세 가지를 주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가정, 높은 지위였다. 요셉에게 사브낫바네아 Zaphnath-Paaneah 라는 이름을 주고 이집트 신관의 딸을 아내로 주어 가정을 이루게 했다. 총리로 임명해서 이집트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다.

이제는 더 이상 요셉이 아니었다. 그는 이집트 총리 사브낫바네아였고 보디베라의 사위였으며 아스낫의 남편이었다. 누구도 그를 노예, 죄수 요셉으로 기억하지 않았다. 파라오는 요셉을 완전한 이집트인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았다. 아스낫에게서 낳은 두 아들의 이름에서 요셉의 마음을 열볼 수 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던라 / 창세기 41:51-42

자신의 이름은 더 이상 요셉이 아니라 ‘사브낫바네아’일지라도 자식들의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지었다. 므낫세의 뜻은 ‘잊어버림’이고 에브라임의 뜻은 ‘두 배의 풍성함’이다. 고난으로 가득한 지난 날을 잊어버리고 이집트에서 번성하게 된 자신의 현재를 두 아들의 이름에 담았다. 이름을 지으며 요셉이 하는 말에 주목하자. 하나님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을 준 것은 파라오였다. 그러나 지난 날의 고난을 잊게 하시고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라는 것이 요셉의 고백이었다. 요셉의 오늘은 파라오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다. 사브낫바네아는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의 자식들도 이집트인이 아니라 히브리 이름을 가진 히브리사람이었다.

요셉은 사브낫바네아가 되어 이집트에서 살았지만 파라오의 뜻대로 동화되지 않았다. 이집트에서 누리는 영화와 부귀도 요셉의 기억을 지우지 못했다.

*사브낫바네아(Zaphnath-Paaneah)의 정확한 뜻은 밝혀지지 않았다. 대체로 두 가지로 추정된다.

(1) ‘생명을 지켜주는...’ 이집트어로 Paaneah 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 ‘비밀을 드러내는 사람’ - 파라오의 신탁-꿈을 해석했으므로.